

전남도, 미래에너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나선다

도,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서 인공태양 연구 최적지 강조
전남 인프라·정책 기반·재생에너지 산업 강점 등도 소개

전남도가 꿈의 에너지로 꼽히는 ‘인공태양’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난 13일 막을 내린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IFPC 2025)’에 참가해, 전남이 인공태양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알리고 유지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는 전 세계 핵융합·플라즈마 분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다. 전남도는 학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 인공태양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전남의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집중 소개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500억원 규모의 초전도도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실증로용 초전도도

체 실험설비 구축 사업’(총 498억원)을 유치하고 3년 차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DN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력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이 전국 1위(1176GW)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갖췄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역시 전력산업 클러스터, 풍부한 재생에너지 원을 중심으로 전남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인공태양 포럼’,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핵융합 연구개발(R&D)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3년 전남도 인공태양 포럼을 개최

? 인공태양 산업
‘인공태양’ 산업은 태양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첨단 에너지 기술 등을 의미한다.

한데 이어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외 핵융합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와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전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전력 산업 중심지라는 확고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에너지인 인공태양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서임석, 관리부실 광주시 민간위탁제도 감사 요청

시의회 예결위원회의서 지적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광주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 부실,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광주시의 총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은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 등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고광환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장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이재태 “광주·전남 상생기구 3년째 개업휴점”

전남도 회계결산심사서 비판

이재태(민주당·나주3)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광주와 전남 간 상생을 목적으로 결성된 기구들이 수년째 가동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22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양 사·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로, 지난 2014년 출범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반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이후 가동을 멈췄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생발전위원회는 양 시도 중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구조라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최근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간 공동 대응이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남북 공동번영 길 열어야”

6·15남북 공동선언 25주년 논평

6·15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무너진 남북관계를 복원해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15일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4기 민주 정부인 이재명 정부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첫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군에 지시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라고 말했다.

시당은 “2000년 6월 13일 오전 분단국인 남한과 북한이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로 평양을 방문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장면

에 한편으로는 열광하였고, 한편으로는 감격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남북관계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 단절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민주 정부는 6·15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새 민주 정부와 함께 25년 전 이뤄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겠다”면서 “무너진 남북관계를 복원해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도 육아 전문가”
아빠 골든벨 도전

제4회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가 지난14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광주에 거주하는 아빠 및 예비아빠들이 육아와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경제부지사에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

공석인 전남도 경제부지사에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강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외 핵심인사로 강성 지지층 조직을 관리해온 외곽 주요 인사로 평가된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이번 주 초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르면 16일 강 상임고문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이던 경제부지사 자리를 별정직으로 변경했다. 김 전남지사는 공모부터 선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개방형 대신 조기에 임명이 가능한 별정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경제부지사직은 지난달 30일 박창환 전 경제부지사가 기획재정부로 복귀하면서 공석이었다. 도청 안팎에서는 박 전 경제부지사 이임 전부터 차기 경제부지사로 강 상임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었다. 강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

통령의 원외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차기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유력시 됐다.

강 상임고문은 영광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한국대학생총학생연합 5기 의장을 역임했다.

강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일정총괄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낙선한 후에는 당대표 특보를 맡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깨끗한 에너지로 - 세상을 따뜻하게!

푸른 하늘 아래
함께 만드는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온기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1등급 전기차 타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